

“광주 자동차산업 초토화 위기…美 관세 막을 대책 시급”

광주시·평화당 지역 국회의원 긴급 간담회…무슨 얘기 오셨나

미국이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1대당 평균가격이 470만원 상승하는 등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광주 자동차산업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50%에 달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천정배·김경진·최경환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함께 16일 오전 국회에서 ‘광주 자동차 산업 위기극복 긴급간담회’를 하고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와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들 의원을 비롯해 산업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소울, 스포티지 등 광주에서 생산된 차량의 50.1%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자동차 부품도 11.8%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광주지역 자동차산업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고 호소했다. 또 광주지역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 21개사 중 18개사는 기아차 광주공장에만 납품하고 있어 미국 고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를 지역 협력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기아차 뿐만 아니라 전국 자동차 산업이 붕괴박산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특히 광주의 경우 지역 수출액 45%, 제조업 종사자 10%,

25% 부과면 대당 450만원 상승

문대통령 직접 나서 위기 막아야

美 상무국 공청회 사절단 파견

총 생산액 30%를 차지한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면 수백여개 협력업체의 생계 막막해지고 일자리 감소로 제2의 군산지연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도 “광주처럼 자동차 산업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지역은 초토화 위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해질 때까지 국회는 국회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대응을 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은 산업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19일부터 미국 상무국에서 공청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산업부가) 범부처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서 한국측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또 미국 상무부·국무부·백악관의 경제외교 핵심인사, 장·재계 핵심 인사에게 한미 동맹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EU(유럽연합) 등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미국을 향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과 나태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이 16일 시청에서 만나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를 위해 기아차 관용차 이용하기,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은 지역경제 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광주지역 최대 규모인 기아차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로, 이 시장의 제안에 따라 전격 성사됐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 “관사 사용하지 않겠다” 선언

이용섭 광주시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논란을 빚은 관사 사용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으면서 향후 시정 혁신과 시민 소통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규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다”며 “이것이 혁신의 첫걸음이고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랜 공직생활 내내 누구보다도 올곧게 살

려고 노력했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늘 깨어 혁신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무엇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훗날 역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결단에 대한 소신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 시장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달 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구 매월동 A아파트(112㎡·34평형) 한 채를 3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이 관사를 폐지한 지 4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으로, 이는 민선 시대 관사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관사는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업무공간의 연장이며,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34평형 아파트를 선택해 매달 관리비나 공과금을 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작은 혁신을 이루고자 했으나 생각이 짧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취임 첫날 시민들과 약속했던 혁신과 소통,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께서 보내주시 지지와 기대를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역 화폐 ‘전남페이’ 도입 추진

이달 자문단 구성 9월중 연구용역

광역단위 상품권 유통 방안도 검토

전남도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고향 사랑 전남페이’(J-Pay)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일까지 금융·IT 전문가, 대학교수, 소상공인 대표 등 10여명으로 전남페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자문단 회의를 열고 9월 중에는 예산 확보와 연구 용역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남 페이는 김영록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상호, 계좌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이용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상공인의 주요 애로사항인 과도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국내에서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또한, 전남페이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비용 등에 들어가는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

적과 함께 카드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지역페이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남, 인천, 제주, 경기 고양 등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페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기관별 시스템 개발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광역 단위 지역 상품권인 ‘새천년 상품권’을 유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군 단위 상품권은 보편화했지만 광역단체 가운데 지역 상품권을 도입한 곳은 강원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기초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과의 중복성, 연계성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정무부지사를 공모한다. 전남도는 정무부지사와 도민소통실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2단장 공개모집 관련 내용을 이날 공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4~30일 응시 원서를 접수해 다음 달 2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남도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달 6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문화전당 운영 참여·인사 의견 개진 명문화 한다

이 총리에 활성화 방안 전달

광주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역 안착을 위해 전당의 운영 참여, 전당장 임명 시 의견 전달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와 전당은 법·제도적인 근거 없이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상호 협조해오고 있다.

시는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5년 개원했으나 아직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지역국회의원을

과 정책간담회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개선 방안을 직접 전달했다. 개선 방안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내에 지역사회 의견을 전달할 (지역)자문위원회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하 아특법) 또는 시행령에 문화전당장 임명 시 광주광역시장의 의견 청취 조항 추가 ▲전당장 자문위원회 시 관련 공직자 위촉(전당 운영규정 제11조) ▲아시아문화원의 이사 및 자문위원회에 시의 공직자 참여 규정 추가 등이 포함됐다.

시는 전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당장 및 문화원장의 임명 시 및 지역사회와의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어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특법에 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 전당은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 수행하는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아시아문화원은 홍보·교육·연구 및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지역 출신인 이 총리에 게 2019년 광주수영선수권대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당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조만간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하나투어

몽골

별하늘,바람,초원의땅
무안공항 울란바타르 직항

[3박5일] 7월 28일(토), 8월 6일(월), 10일(금), 14일(화), 18일(토)
[4박6일] 8월 1일(수)

★단 5날짜 한정특가
7월28일,8월1일,6일,14일,18일
 CNPF85
1,099,000원~
울란바타르/테를지5,6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푸르른 대초원 #게르 2박 숙박

유목민 생활체험
테를지 초원 승마체험
 CNPF87
1,599,000원~
울란바타르/테를지 5,6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몽골전통공연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장점 062)228-1199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안심결제 캠페인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통료, 현지관광인정료 등 반드시 고객에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여행일정]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별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음)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편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체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장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한다.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